

아름다운 언덕 공동동

꿈마을공동체

미리보기

공릉동 꿈마을 여행

꿈마을은 왜 공릉동 꿈마을로 여행을 떠났을까?





시작 둘러앉기

"한 달에 한 번, 다 함께 둘러앉아 마을 일을 공리하는 즐거운 만남"

공릉동꿈마을공동체 7월 정기회의

일시 2019. 7. 23. (화) 오전 10시 장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층 풀락

1 [안녕하세요] 근황 나눔, 활동소식 공유

2 [공동캠페인] 꿈마을공동체X공터X안마을신문 릴레이기고

- 책인강(이철재) "업시 위주 독서 습관이 문해력 약한다" (2019. 6. 21. 안마을신문 제25호)
- 공길장(장성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청소년에게 기회를--공길장" (2019. 7. 05. 안마을신문 제26호)
- 로컬럽(김동환) "학교 앞 신흥실 로컬럽" (2019. 7. 19. 안마을신문 제27호)
- 이후 순서: 북카페대학, 미디어사회, 과학관
- 꿈마을공동체 공동과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담당할 마을 만들기> 중간 결산

3 [꿈마을축제] 제9회 꿈마을 청소년축제 꿈나르사

- 8/24(토) 17:30~21:30 공릉근린공원 - 축제 안내, 홍보 독려

4 [이야기해요] 지역현안 및 기타안건

- 7/6 공릉2동주민자치회-주민총회 결과 공유
- 2019.7.10. ~ 2022. 7. 9. 북카페 대학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재위탁 확정
- 공터 리모델링 준비
- 지역축제 안내
- 9/21 노원평생학습축제 10/4~6 노원달축제(연aje-퍼레이드) 10/26 노원구청소년축제 '노을'

♥함께해요♥

매 월 1회 진행되는 공릉동꿈마을공동체 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를 꿈꾼다면 편히 둘러 오세요. D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문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마을사업팀 ☎070-8796-6942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릉동 꿈마을 선언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릉동 꿈마을 선언문

우리는
이웃과 이웃이 반갑게 인사하고, 소통하며, 협동할 수 있는 마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당당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을로 공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꿈꾸는 꿈마을은

1.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꿈 공동체 마을이다.
2. 배움과 가르침이 마을 곳곳에 넘쳐나는 학습공동체 마을이다.
3. 마을 곳곳에 꿈꾸는 문화가 흐르는 문화공동체 마을이다.
4. 이웃을 돌보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마을이다.

우리 마을을 아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은 꿈마을공동체의 일원이다.
꿈마을공동체는 공릉동을 꿈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에 온 마을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2. 9. 9.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공릉동꿈마을 공동체 가치와 약속 9

The 9 Commandments of The Dream Community Gongneung



공릉동 꿈마을의 9가지 공동체 가치와 약속

가치

01.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02.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03.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04.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05. 공동체 활동에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약속

06.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들에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07. 경쟁을 줄이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08.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휴대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09.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춥니다.

'꿈마을공동체'

자율적 개인들이 열린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사는 마을 속 작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청소년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느슨한 연대

공릉동 '꿈마을공동체'는

since 2012.9.9

이웃과 이웃이

반갑게 인사하고, 소통하며, 협동할 수 있는 마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당당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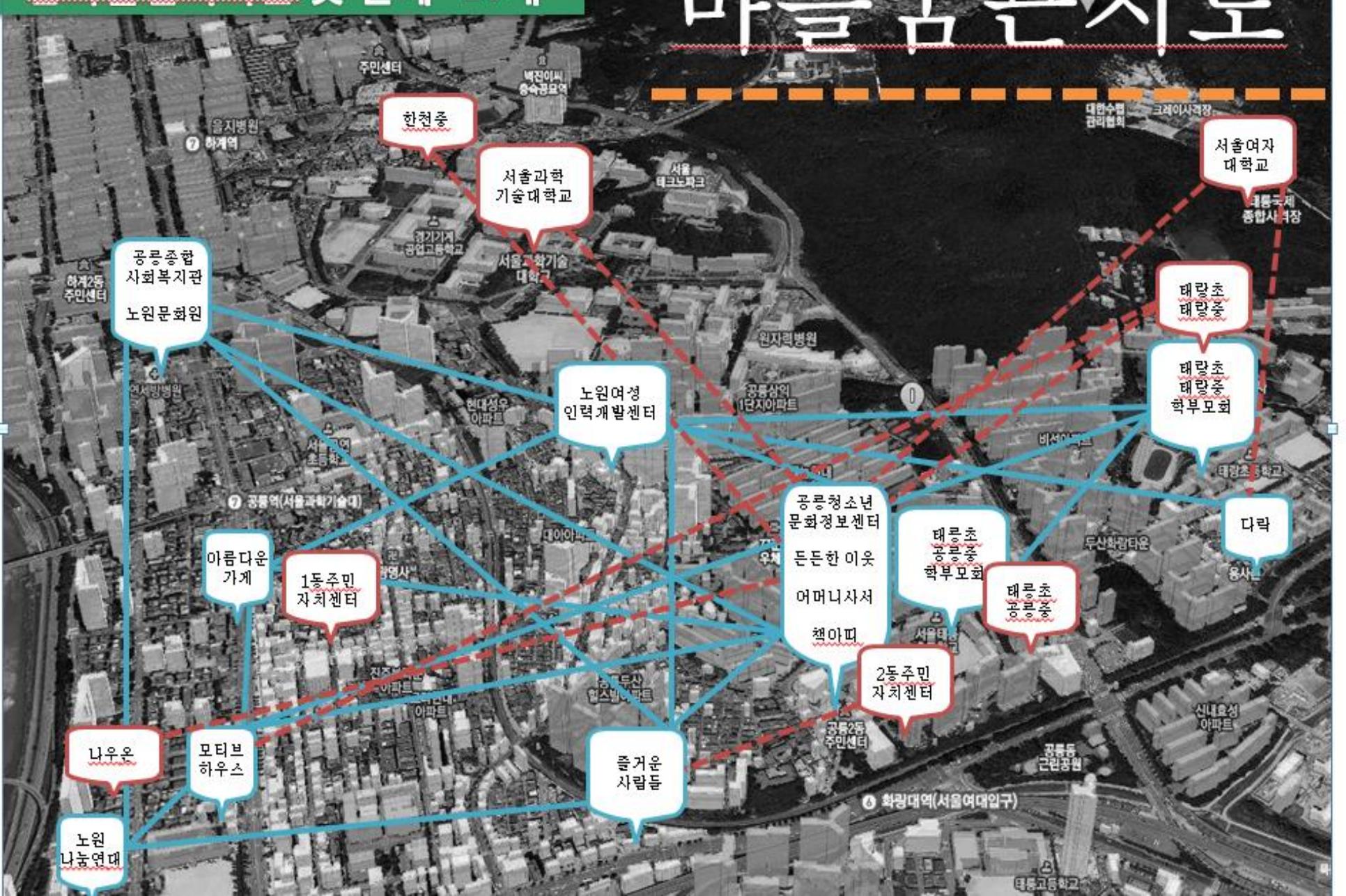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을로 공릉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였다.

우리가 꿈꾸는 꿈 마을은

1.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꿈 공동체 마을이다.
2. 배움과 가르침이 마을 곳곳에 넘쳐나는 학습공동체 마을이다.
3. 마을 곳곳에 꿈꾸는 문화가 흐르는 문화공동체 마을이다.
4. 이웃을 돌보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마을이다.

마을공동체회원단체 16개
 꿈마을협력기관 및 단체 10개

마을꿈꾸는지도



마디상회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교회연합회

문일공방

화랑도서관

시작된변화 청소년동아리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공릉지역아동센터

공간이음

북카페 다락

나눔미인

노원다문화지원센터

한살림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책임감

공릉도깨비시장상인회

공릉2동주민자치센터

안마을신문

시와꽃

자연주의

이유있는목요일

사단법인 나우온

가치놀자

청소년휴카페꽃다방

노원건강가정센터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아스피린센터

서울YWCA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지구불시착

등대모임

백인백색 편찬위원회

공릉동꿈마을여행단

마을과 마디

공릉보건지소

아빠모임

책아띠

책바라기

꿈마을청년단

녹색어머니회

나누우리

로컬랩

나랑같이

행복중심생협 공릉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FM

가족기자단

착한바느질

나도꽃

태릉초등학교학부모회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공릉톡

꿈마을풍물패

육아모임

어린이책 시민연대 노원지회

전통연희연구소 예천

아름다운가게노원공릉점

태랑중학교학부모회

꿈길장

두루모아공예협동조합

다운복지관

든든한 이웃

도서관 일촌

공릉지역 청년 모임

공릉행복발전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극단즐거운사람들

노원나눔연대

태랑초등학교학부모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공릉중학교학부모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노원문화원

2019년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공동의제

어린이 청소년이 당당한 마을

꿈마을공동체 2019 공동과제 투표

2019년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공동과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당한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청소년의 권리신장, 더불어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따로, 또 같이 하는 도전도 재밌고 색다르지 않을까요?

각 기관, 단체에서 2019 마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실지 벌써부터 두근두근 설레고 기대됩니다.
1월 8일, 마을 걷고 떡국 먹으며 신나게 새해를 맞이하고
2월 마을공동체 회의 때 둘러앉아 서로의 실천과제를 이야기 나눠요!
(꼭 한 가지씩 계획을 세운 후 2월 회의에 참석해주세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2019년도 잘 부탁 드립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p><마을과제 1번>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p>	<p><마을과제 2번> 지역 환경을 가꾸고 보호하는 공동체</p>	<p><마을과제 3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p>	<p><마을과제 4번> 사회의 아픈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공동체</p>
<p><마을과제 5번>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당한 마을 (청소년 권리신장)</p>	<p><마을과제 6번>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마을</p>	<p><마을과제 7번> 지역 경제 살리기 (협동경제 활성화)</p>	<p><참여방법> 2019년 꿈마을공동체와 함께 도전하고픈 과제를 선택해주세요! 1인당 총 3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투표용지에 과제 번호를 적어 투표함에 소~옥 넣으면 끝! 참 쉽죠?</p>



- ▶ 조사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8~21시
- ▶ 조사 대상 꿈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누구나
- ▶ 조사 방법 투표 (1인 3주제 선택)
- ▶ 참여 인원 공감의밤 참가자 50명

투표 결과

(1)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	25 (2위)
(2) 지역 환경을 가꾸고 보호하는 공동체	23 (3위)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13
(4) 사회의 아픈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공동체	20
(5)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당한 마을: 청소년 권리신장	★ 37 (1위) ★
(6)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마을	14
(7) 지역 경제 살리기: 협동경제 활성화	5

2019 꿈마을공동체·공터·안마을신문 공동캠페인

마을과 청년 이어주는 공간... '로컬랩'

김동환 로컬랩 서울 대표



로컬랩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공유 작업실입니다. IT,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예비창업자로서 저의 작업실 겸, 재가 했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함께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함께 창업할 수 있는 멤버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상호할 '로컬랩'으로 만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지역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지리 접근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향, 꿈마을 회의를 알게 되었고, 공동청소년문화정보센터(공터)와 공동꿈마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분들을 만났습니다. 공동에는 좋은 어른

들이 있고 마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 또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딱히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아니었고요. 하지만, 좋은 어른 분들을 만나게 되어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본업을 버려둔 채로 지역 공동체와 마을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들을 만나며, 마을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물론 로컬랩에서 지역 대학생, 청년들과도 만나왔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들의 소통 공간 현재의 로컬랩은 청소년 직후의 대학생, 청년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아직은 타인과

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서부터, 이미 여러 대외활동 또는 창업 활동으로 사회 경험을 쌓아온 학생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지키는 중요한 한 가지는 존중입니다. 공터에서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이직 공동에는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의 소비할 수 있는 공간만 있을 뿐,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로컬랩은 이러한 마을과 청년을 잇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학생, 청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를 마을과 연결,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쉽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과 소

통하며, 존중하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목표를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끼리라도 먼저 보자라는 생각으로 대학생, 청년들과 소셜다이닝, 예비창업자 모임, 공동체 크리에이티브 모임 등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랩의 약 1년 반 동안의 활동과 경험으로 마을과 청년, 청소년들을 잇기 위한 '공동체101'이라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공유 플랫폼 꿈꾸

공동체 및 주변 지역은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대학교는 자타공인의 로컬 특성화 대학이며

또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는 시각, 공업/산업,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 디자인 관련 학과가 존재하며 관련 전공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배우는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클래스로 만들어 지역주민 및 친구 대학생, 청소년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를 매개의 시작으로 주민과 소통할 기회를 얻고,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홍보입니다. 현재 디자인, 사진, 도자기, 조항, 드로잉, 코딩, 목사, 글쓰기 등의 다양한 분야의 클래스가 개설 준비되고 있습니다. '공동체10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 캠페인 릴레이 기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꿈마을협동조합
다운복지관
도서관일촌
튼튼한이웃
공릉동꿈마을여행단
어린이책시민연대 노원지회
나도꽃
꽃다방
책인감
꿈길장
로컬랩
북카페다락
마디상회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일촌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학교 9th x 시작된다와 9th

쓰레기더쿠

쓰덕으로 살아보기

플라스틱 아일랜드 탐험하기, 플라스틱 어택, 나만의 쓰덕질 상상하고 실천하기 등!

할! 바다코끼리의 꼬를 찌르는 불대리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구나!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뭘 해야하지? 내가 해서 바깥까? 쓰레기더쿠? 쓰덕질...!!

일시: 2019년 7월 25일(목) - 7월 28일(일) (총4일)
대상: 14세-24세 청소년 40명 (개인, 팀(4명-8명) 신청 모두 OK)
특전: 봉사활동시간 12시간 발급 (단,4일 모두 참석 / 심화과정은 활동시간에 따라 봉사시간 추가 발급)
신청방법 및 기간: 홈페이지(www.gcycenter.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터 3층사무실 및 이메일(es803@youth.seoul.kr) 접수 / 7월2일(화)-7월22일(월)
문의: 청소년사업팀(070-8767-3698)

일과과정: 25일(목),26일(금) 13시-15시 30분 / 27일(토)-28일(일) 13시-07시 (중하에서 1박2일)
심화과정: 7월 일과과정은 물론, 8, 9월 추가 활동 / 탐방도 일정은 별도 진행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응원하기

유쾌한 작당을 위한 공동체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축제", 감사합니다! 제7회 꿈마을어린이큰잔치 와글와글

[축제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대덕프라자상인회(놀부보쌈, 드레슬름, 모로헤어, 바푸리김밥, 봉구스밥버거, 베스킨라빈스, 산애티와일게시, 스키오사카, 워너핏헬스클럽, 이보영토크클럽, 치린마루, 탐수성학원, 피자스쿨 하이렉스파, 할매손대국), 공릉2동주민자치센터,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극단즐거우사람들, 꿈길장, 꿈마을어항단, 나도꽃, 노원구청아동청소년과·자원순환과,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다운북지관, 든든한이웃, 서울시립과학관일촌, 한국전력공사인재개발원

[2019 함께하는 기관·단체]

가야금이랑, 가지놀이, 공릉봄꽃교회, 공릉중학교학부모회,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구립공릉지역아동센터, 굿네이버스서울동부지부, 꽃다방, 꿈마을풍물패, 나도꽃,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다운북지관, 달과누대, 도서관일촌어머니사서, 든든한이웃, 북카페다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의사진반, 서울여자대학교 We-play, 어린이책시민연대노원지회, 어우와곰돌이, 책먹는아이들,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활동단(Ge-cat, H.M, WTT2, 공릉중떠오, 그린나래, 라온제나, 리스타트, 버리, 블루문, 서울외고쭈쭈뻥뻥, 어린이사서, 유나크로체, 이상한동아리, 인덴스, 청문gym, 청소년사서, 태릉중학교오케스트라, 팍팍팍팍, 프란시스, 한빛), 탐스타, 태릉중학교학부모회, 태릉초등학교학부모회, 태릉초등학교학부모회, 태릉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 통기타클래스, 하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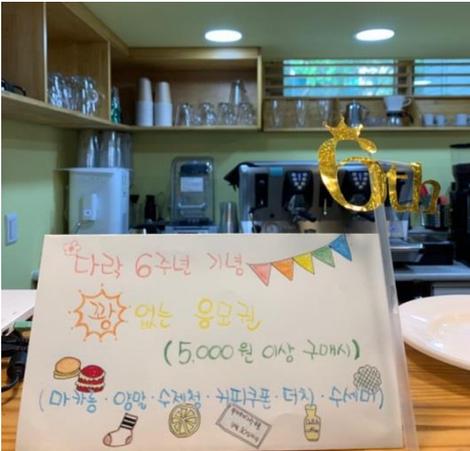
다락의 여섯 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스타벅스가
커피라면
북카페다락은
사랑이야



다락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1,000원!!!
♥5,000원 이상 구매시 광없는 응모권!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차시	일정	내용
1차시	5월 27일	OT진행
2차시	6월 03일	마을여행
3차시	6월 10일	마을여행
4차시	6월 17일	다운복지관
5차시	6월 24일	꽃다방
6차시	7월 1일	착한바스질
7차시	7월 8일	지구불시착
8차시	7월 15일	꿈마을협동조합
9차시	7월 22일	마우리모임

공릉 2동 주민자치회

민주주의와 자치의 실험

주민총회 성료... 풀뿌리민주주의 큰 걸음

문예체분과 '경춘선 숲길 문화제'... 선호도 1위 의제실행, 시민참여예산 등 압도적 지지 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공릉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주민총회를 열고 앞으로 1년간 실행될 주민자치계획을 통과시켰다. 특히 6200원 규모의 새해 주민세 환원분 의제는 선호도 조사 결과 문예체육분과가 제안한 '경춘선 숲길 문화제'를 최우선 순위로 선택했다.

이날 오후 3시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의제실행비 의제로 교육분과 '마을 여행', 문화예술체육분과 '그늘이 필요해', 환경복지지원분과 '뜨레기보따리 꽃밭' 사업을 선정, 90.8%의 지지를 얻어 채택했다.

또 시민참여예산 의제로 자치회관운영분과 '힐링업 행복 주민자치계획을 통과시켰다. 특히 6200원 규모의 새해 주민세 환원분 의제는 선호도 조사 결과 문예체육분과가 제안한 '경춘선 숲길 문화제'를 최우선 순위로 선택했다.

이날 오후 3시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의제실행비 의제로 교육분과 '마을 여행', 문화예술체육분과 '그늘이 필요해', 환경복지지원분과 '뜨레기보따리 꽃



센터 댄스 동아리 '인텔스' 공연도 선보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오승학 구청장은 "그 동안 혼자 해 왔던 마을 발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모든 주민들이 같이 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주민세 환원분 6200만원에 더해 20억원을 드립테니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음껏 써 보시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다만 무뚱하게만 집행하면 된다"며 "구청은 이제 옛 영광도 잃고공민 불빛 등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규모의 큰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숙 주민자치회장은 "그 동안 변방이었던 공릉동이 이제 노년구의 중심, 나아가 서울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듯이 주민자치회가 구슬인



축박한 일정, 무더위 극복 성공적 총회

학생, 젊은 부부까지 불러낼 마을의제 발굴해야 짧은 준비 과정, 의제에 대한 홍보 부족 아쉬움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참석자가 예초 성원 인원으로 설정했던 20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전자투표기는 250대가 준비됐다. 일찍 왔다가 돌아간 사람, 늦게 와서 전자투표기를 받기 못한 사람도 있었다. 주민총회 대강당에 마련된 230여석은 이미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들어차고 뒤쪽에는 내내 서서 지켜보는 사람도 많았다.

생각이 이루어진 주민총회임을 증명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이었다.

예초 200명을 성원 기준으로 잡은 것도 아쉬웠다. 공릉2동 전 주민의 0.5%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었지만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았다면 열기는 더 뜨거웠을 것이다. 그만큼 공릉2동에 마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흑사라도 성원을 어루지 못해 주민총회가 무산되면 어쩌나 하는 열려가 앞섰다. 다음 총회에는 성원기준도 크게 늘리고 그간을 참여해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회의 진행 과정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총회는 하반기 의제실행예산에 대한 설명과 찬반, 내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과 찬반, 그리고 주민세 환원분 예산에 대한 각 분과별 설명과 찬반, 선호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의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각 의제별로 찬반을 묻는 것이 좋았다. 전자투표 형식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충분히 가능했다. 다만 2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모든 의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 의제를 묶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일정 정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분과별 의제를 묶어 찬반을 물거나 차라리 모든 의제를 하나로 찬반을 묻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총회의 진행 과정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총회는 하반기 의제실행예산에 대한 설명과 찬반, 내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과 찬반, 그리고 주민세 환원분 예산에 대한 각 분과별 설명과 찬반, 선호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의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면 각 의제별로 찬반을 묻는 것이 좋았다. 전자투표 형식이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충분히 가능했다. 다만 200여 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모든 의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 의제를 묶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일정 정도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분과별 의제를 묶어 찬반을 물거나 차라리 모든 의제를 하나로 찬반을 묻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성원 기준 높이고 홍보 활동 늘려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총회장 대부분을 채운 것도 이해는 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마을을 오래 지켜온 분들이 주민총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신혼부부, 대학생이 많은데도 그들을 총회 대상으로 불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우리 마을은 만 15세 이상에 투표권을 주어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총회 당일에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시합시간이었다. 또 대학생들은 이미 방학을 한 이후였다. 게다가 젊은이들을 회의장으로 불러내민한 의제가 없었다.



안마을신문

후원

안마을신문을 후원해주세요.

- 하나은행 571-910159-37307
- 카카오뱅크 3333-08-5178333
- 카카오페이 오른쪽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좋은 기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액과 기간, 회수 제한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상치 못한 무더위가 최대 난관

하지만 예상 못한 회의장의 더위는 가장 큰 문제였다. 회의 당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고 예어컨은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수차례 회의 진행자 측에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일 에어컨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흑사가는 피해서 총회 날짜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마을지역에 5,000부가 집중 배포됨으로써 최고의 가성비를 보장합니다."

문의전화 02-971-1503, 010-2364-9868 boney0000@gmail.com

안마을신문

후원

안마을신문을 후원해주세요.

- 하나은행 571-910159-37307
- 카카오뱅크 3333-08-5178333
- 카카오페이 오른쪽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좋은 기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액과 기간, 회수 제한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예상치 못한 무더위가 최대 난관

하지만 예상 못한 회의장의 더위는 가장 큰 문제였다. 회의 당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고 예어컨은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수차례 회의 진행자 측에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일 에어컨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흑사가는 피해서 총회 날짜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마을지역에 5,000부가 집중 배포됨으로써 최고의 가성비를 보장합니다."

문의전화 02-971-1503, 010-2364-9868 boney0000@gmail.com

- 광고 안내**
- 기업광고 · 상품광고 · 공공광고
 - 영입광고(마트, 음식점, 약국, 부동산, 당구장 등)
 - 학원광고(영어, 수학 전문학원, 태권도, 미술학원 등)
 - 구인광고(아르바이트, 임시직, 정규직 등)
 - 임대, 매매광고(아파트, 사무실, 부동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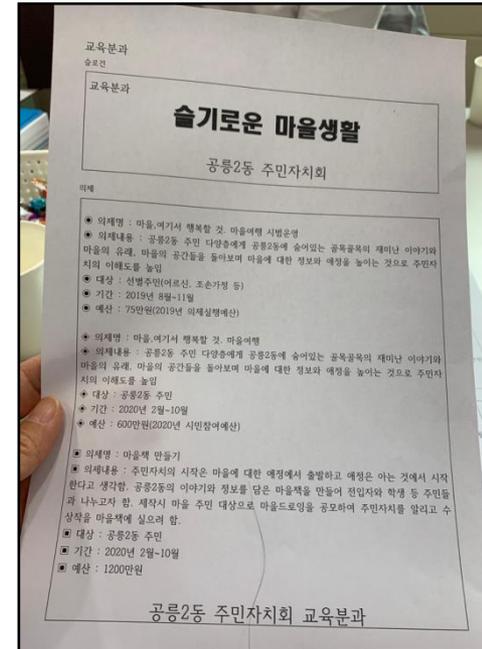


슬기로운 마을생활

교육분과

2020년 주민세 환원분 인제

4. 경춘선 숲길 문화제(문화예술체육분과)	30.0% / 69
2. 마을책 만들기(교육분과)	20.9% / 48
5. 주민자치회관 홍보관 설치(자치회관운영분과)	19.6% / 45
1. 화랑대역 위 경춘선 숲길 사인설치(기획분과)	16.5% / 38
3. 우리집이 달라졌어요(환경복지안전분과)	13.0% / 30



누구나 ~
자발적으로 ~
우연과 우발적으로 ~
환대하는 ~
배우고 가르치는 ~
열린 공동체

